

미래통합당

- 창영초, 대현중, 제물포고 졸업
- 연세대 행정대학원
도시및지방행정전공 석사 과정 졸업
- [전] 제15대·17대 국회의원
- [전] 국회 과학기술연구회 회장
- [전] 국회 교육위, 예산 결산 특위 간사

책자형선거공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남동구 을 선거구

“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
”

부패·무능정권 심판

2 **이원복**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남동을구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2	미래 통합당	이원복	남	1957.07.15 (만 62세)	정치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및지방행정전공 석사과정 졸업	(전) 제15·17대 국회의원 (전) 국회 과학기술연구회 회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465,790	285,410	없음	180,380	고지거부	육군 병장 (만기전역)	육군 병장 (만기전역)

3.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24,064	6,206	없음	- 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4. 10. 08)
후보자	5,954	없음	없음	
배우자	8,343	6,206	없음	
직계존속	840	없음	없음	
직계비속	8,927	없음	없음	

4. 소명서

전과기록은 자월도 주택지에 붙어있는 토지공유지분(대지 200여평, 임야 300여평/가액 1억5천 만원)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구두계약과 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하여 분쟁이 발생. 부동산 계약이 서툴러 발생한 실수로 형사피소 직후 매매대금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금전상의 어려움으로 하지 못하고, 처분 후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없이 깨끗이 정리해 준 사건임.

“나라가 걱정돼 다시 돌아 왔습니다!!”

기나긴 12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떠나 가 있는 동안 단 한시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자연 속에 살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정화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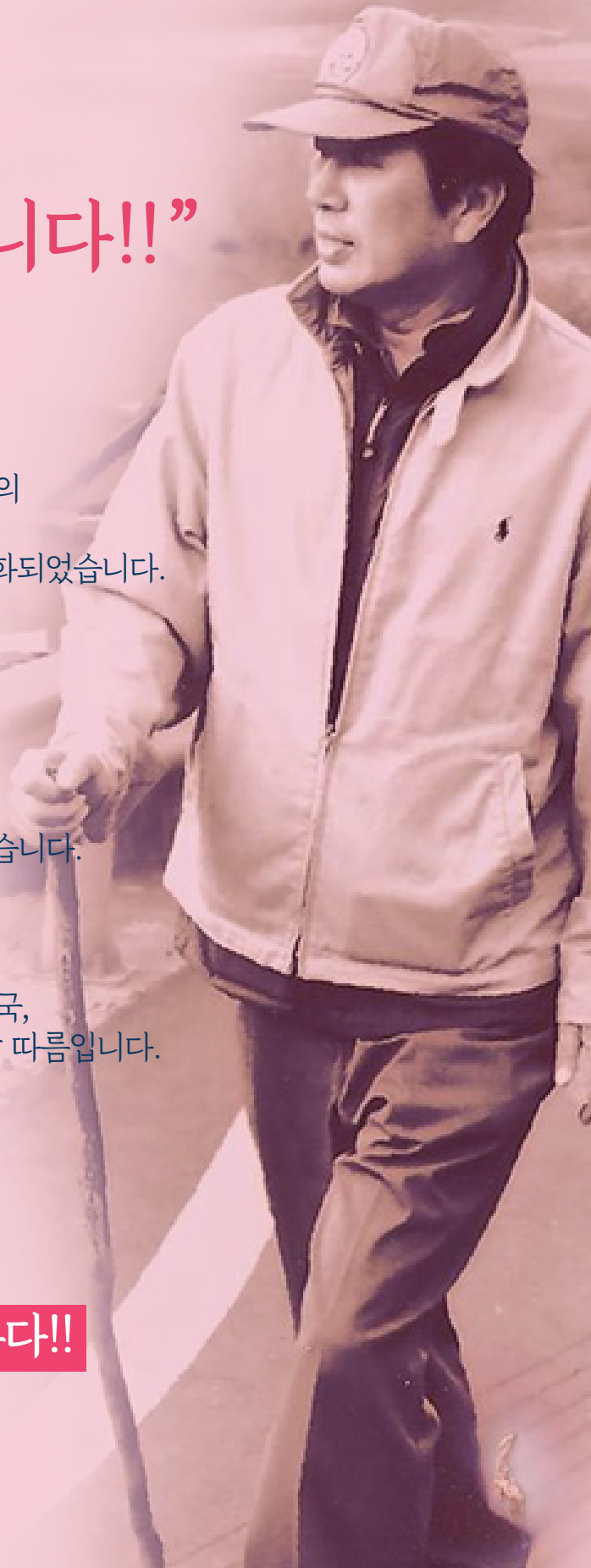
사람을 이해하고,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함께 조용히 사는 그런
소박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작년부터
다시 정계로 들어 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자손들에게 자랑스런 자유대한민국,
굳건한 의회민주주의를 물려 주고자 할 따름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 온
선조들의 피와 땀을 기억합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만악의 악, 국회·정치

여당이 되는 순간부터 정치인은 사라지고
내부에 반대 목소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승만, 박정희가 정치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이후 대통령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여전히 이를 답습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뭐라 하면 받아쓰기만 하는 청와대 참모진들...
그곳에 정치는 없습니다.

정치 시스템과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정당개혁, 공천개혁이 정답!

지역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정치인이 탄생하도록
공천 제도와 정당 운영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훌륭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누가 좌지우지하는 일이 아닌
오롯이 주민의 손으로 해내야 합니다.
이것을 잘 해내는 정당이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정당 운영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당 대표가 당 재정을 마음대로 쓰는 현실, 안됩니다.
앞으로는 깨끗하고 투명하게 써야 합니다.

정당이 국민의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정당과 공천 시스템을 개혁하겠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명문 정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10년도 못 버티는 한국 정당들...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기업이 살아나야 합니다!

중국산, 베트남산 공산품들이 세상을 휩쓰는 시대입니다.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공장에서 퇴출당한 우리의 아빠, 엄마들이
빛을 내고 퇴직금을 보태어 뒷골목 구석구석까지 가게를 차립니다.
오를 대로 오른 물가. 텅 빈 가게에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합심협력하여 이분들에게 대안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신산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숨어있는 틈새시장을 찾아내어
첨단과학 기술로 무장된 4차 산업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레저, 스포츠, 관광산업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전 국토를 새롭게 다듬고, 인구를 분산시켜
대한민국 곳곳에서 성장 동력이 생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국민훈장제를 실시하여
금지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노사협력의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민 경제가 살아나야 합니다!

기초생존권보장제와 기초생활보장제가 제대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돈이 없어 점심을 굶고, 생리대도 못 사는 아이들.....
국민 1인당 기본적 거주권한제를 실시하여
주거 생활의 최소한의 면적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 및 임대료 상한제도 시급합니다.
건물주와 세입자가 공생하는 시스템이 만들어 져야 합니다.

서민 경제를 살피지 않는 정당과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민을 위한 아파트, 병원, 학교 등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퍼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 가도록 고쳐야 합니다.



대한민국 살리기 15대 공약



1. 각급 선거, 공천제도 근본적 쇄신
(국민완전경선제의 방향으로)
2. 정당운영의 투명화
(정당예산, 회계 전면적 공개)
3. 지방행정구역 개편
(전국17개 시도 226개 자치구에서 전국 25개 시도로)
4. 아동청소년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5. 원스톱 인허가 관리청 신설
6. 그린벨트 재조정 및 이용효율성 극대화
(그린벨트 내 병원, 종교시설, 문화체육시설 신축 허용 등)
7. 산지, 임해지 개발 촉진 및 지원
8. 문화, 관광, 생활체육예산 대폭 증액
9. 국회 상임위 활동 24시간 생중계 시스템 도입
10. 국토 및 도시 가꾸기와 길거리 청결운동 전개
11. 데모광장신설, 집회 및 시위문화 개혁
(조용한 민주주의화)
12. 최저생활보장제 실시
13. 건축법 개정을 통한 빌딩 내 10% 숙박시설 허용
14. 감사원 국회이관, 의원예산제안제 실시
15. 사법개혁, 법률통폐합 과감한 폐지운동 전개

인천 살리기 15대 공약

1. 제2경인전철 조기착공
2. 인천을 대한민국 교육특구로 조성
(북경대, 동경대, MIT등 분교 추진)
3. 도서지역(섬) 해상교통공영제 도입
4. 제 3수도권 외곽 고속도로 조기 완공 추진
5. 인천가족공원 단계적재개발 조기 완공
6. 남동공단 내 및 소래 폐염전부지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문화 환경 조성
7. 계양산, 소래산, 문학산, 청량산 연계 생태 보행로 조성
8. 인천대공원 연계 생활체육시설 보강
9. 인천대공원-소래포구 연결 생태공원 조성
10. 장수 병목구간 만성교통체증 해소
11. 연안부두-월미도간 전철 연결
12. 인천대 의과대학 조성, 병원 신설 추진
13. 경인고속도로 요금 완전 폐지
14. 국회의원 정족수 내 인천 의원수 확대 재조정
15. 인천 도시환경 비엔날레 추진

남동구 살리기 15대 공약



1. 구도심 주차난 전면 해소(2~10년 계획)
2. 서창지역 통과제2경인전철 추진
3.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서창역 신설
4. 노후 상하수도관 단계적 교체
5. 재래시장 내 무료 와이파이존 확대
6. 남동 여성·노인 문화센터 건립
7.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8. 골목길 CCTV 설치 확대
9. 인천대공원-소래생태공원 생태형 둘레길 조성
10. 신세계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11. 건설기술교육원 부지활용도 제고
12. 만수6동 고속도로변 터널식 방음벽 설치
13. 만의골 친환경 관광단지 조성
14. 서창2동 복합커뮤니티센터(수영장, 도서관 등) 건립
15. 서창2동 초·중·고등학교 추가 신설



이원복의 삶과 정치

참으로 영광과 고난이 함께 한 63년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나 3살 때 인천에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가난한 달동네에 살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서민정치는 이때 이미 제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는지 모릅니다.
 27세에 정당에 들어가 현재 62세이니가 거의 35년을 정치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12년간 섬에 들어가 민박집 운영도 했습니다.)
 처음 정치할 때 보다 지금이 훨씬 나빠졌다고 느낍니다.
 발전한 영역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계속 낙후되어 왔습니다.
 제 삶과 정치 인생에 어떤 전환점을 만들고 싶습니다.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등원할 기회를 주신다면,
 국민 여러분의 마음 속에 깊이 존경받는
 그런 정치를 하고 떠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2 이원복

국회의원 남동구를 후보

구월2동 / 간석2~3동 / 만수1~6동 / 장수서창운연동 / 서창2동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여러분의 모습에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제대하는 그날까지 몸 건강하시고,
아무 탈 없이 군 복무를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